

江西 地域文化와 湯顯祖의 문학사상

최 낙 민*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江西의 文化傳統과
湯顯祖의 文學思想 |
| II. 江西의 地域文化傳統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교통과 통신시설의 발전으로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고,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지역이나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적 폐쇄성에 기반 한 전통사회 속에서는 지역이 갖는 의미가 컸다. 일정한 지역 속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은 동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였고, 이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과 같은 정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司馬遷이나 班固와 같은 역사가들은 역사 서술 속에서 지리환경과 풍속, 문학작품 창작과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고¹⁾, 陸機나 劉勰, 鍾嶸과 같은 文論家들은 작가와 자연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였으며²⁾, 北宋대에는 ‘江西詩派’라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

* 한국해양대학교 전임연구원

1) 《史記·殖貨列傳》, 《漢書·地理志》에는 문학 창작과 지리환경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풍부하다.

2) 陸機는 《文賦》속에서 ‘物感說’을 제창하였고, 劉勰은 《文心雕龍·物色》: “저

詩歌유과가 등장하게 되었다.

明代에는 地域이나 區域에 따라 시가유과나 사상유과를 나누는 것이 더욱 일반화 되었고³⁾, 湯顯祖의 《玉茗堂集》에 평어를 달았던 沈際飛는 “지역으로 사람을 논하는 것이 근래 叙를 짓는 틀이 되었다”⁴⁾고 하여 지역과 작가의 연관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湯顯祖뿐만 아니라 당시 문인들의 공통된 취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湯顯祖(1550~1610)는 宋代의 문화 중심지 江西省 撫州府 臨川縣의 한 書香家에서 태어나 江西의 문화전통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강서지역의 土樂과 弋陽腔이 합쳐진 宜黃腔에 맞춰 《紫釵記》, 《牡丹亭》, 《南柯記》, 《邯鄲記》를 지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臨川四夢”이라 불렀다. 또한, 沈璟 등 音律을 중시하던 吳江派의 작가들은 湯顯祖를 文辭를 중시하는 臨川派의 영수로 간주하였고, 文學思想上的 이견과 희곡창작에 대한 견해 차로 격렬한 논쟁을 진행했다. 湯顯祖는 의도적으로 어떤 유과를 양성한 적이 없으며, 심경의 이론도 일찍이 커다란 영향을 일으켰지만 오강 일대의 기타 희곡가들이 모두 그의 학설을 추종하지는 않았다.⁵⁾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湯顯祖와 심경의 논쟁을 吳江派나 臨川派로 나누어 정리한 것을 보면 지역과 개인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湯顯祖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풍부하지만 대부분 晚明이라는 시대환경에 중심을 두고 진행된 것이 많고, 그가 살았던 공간과 그 공간에 축적되

산림이나 물가는 실로 詩情의 보고이다(若乃山林阜壤, 實文思之奧府), “정감은 만물에서 흥기되고, 만물은 정감으로써 보여 진다(情以物興, 物以情觀)”라고 하여 주관적인 정과 객관적인 물의 상호관계를 중시하였고, 鍾嶸은 《詩品序》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시에 감동을 준다(四候之感諸詩)”라고 하였다.

- 3) 胡應麟은 《詩藪》에서 명초의 시를 ‘吳詩派, 越詩派, 閩詩派, 嶺南詩派, 江右詩派’와 같이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黃宗羲는 《明儒學案》에서 양명학과를 浙中, 江右, 南中, 楚中, 北方, 粵閩, 泰州學派 7개 유과로 나누었다.
- 4) 湯顯祖, 徐朔方箋校, 《湯顯祖全集》(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9. 詩文卷32 <金竺山房詩序>: “以地論人, 邇來作叙之套. 然出自才人之筆, 自有異姿.”
- 5) 周勳初, 《中國文學批評小史》(湖北: 長江文藝出版社, 1981. 201쪽.

어진 문화적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당현조의 삶과 작품, 문학주장 등, 그의 문학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II. 江西의 地域文化傳統

중국은 長久한 역사와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다. 때문에 매 역사시기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경제의 발전상황이 달랐고, 문화의 발전 정도 역시 그 궤를 달리하여 선명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江西가 오늘 날처럼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西漢때 이고, 唐 玄宗 때 江南西道로 불리게 되면서 江西라는 지명아래 자기만의 지역문화를 키워 나갈 수 있었다.

1. 江西 地域文化의 成立背景

江南의 중심에 위치한 강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의 九江이 유일한 출구로 열려 있으며, 그 중앙은 붉은 색의 풍요로운 평원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산을 넘으면 浙江省과 福建省으로 통하고, 서쪽으로는 湖南省과 湖北省으로 통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吳楚와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楚尾吳頭”라고도 불렸다. 강서와 오는 서로 인접한 지역이었지만 자연환경과 언어, 문화 방면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강서의 지역문화는 오랫동안 吳, 楚의 지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점차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강서 지역문화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번영은 대륙의 남과 북을 잇는 大運河가 완성되고, 다시 長江 남쪽에서 廣州에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고자 했던 隋·唐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는, 高宗 上元2년(675) 交趾(越南 북부지방)로 가기위해 洪州(南昌)를 지나갔던 王勃의 路程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왕발은 홍주에 소재한 滕王閣에 올라 강서의 지역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형용하였다.

豫章은 옛날의 郡 이름이요, 洪都는 신설된 洪州 都督府이다. 별자리는 翼星과 軫星을 나누고, 지세는 衡山과 廬山과 인접해 있다. 三江(荊江, 松江, 浙江)을 옷깃으로 달고, 五湖(太湖, 鄱陽湖, 青草湖, 丹陽湖, 洞庭湖)를 허리띠로 둘렀으며, 荊楚의 南蠻을 억누르고, 越族의 東甌(지금의 강소성, 절강성)를 끌어들이고 있다. 물자의 질이 뛰어난 하늘이 내린 보배이기 때문이라, 龍泉劍의 빛이 牛星과 斗星의 구역까지 비치고, 이곳 출신의 인물들이 걸출함은 지세가 신령스런 때문이다. …… 큰 州郡들이 마치 안개처럼 널려있고, 걸출한 인물들은 마치 못 별들이 질주하듯 왕래가 빈번하다.⁶⁾

《滕王閣序》를 완성한 왕발은 三江과 五湖와 연결되어있고, 강서의 남북을 관통하는 贛江을 따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더 이상 배가 갈 수 없는 지점에서 육로를 통해 강서와 廣東을 잇는 大庾嶺을 넘었다. 왕발은 廣東의 南雄에서 다시 배를 타고 韶州를 거쳐 廣州에 도착해 交趾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다. 왕발의 노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서는 당시 中原과 兩廣의 인물과 물자를 소통시키는 교통의 중추, 문화와 상업의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유령의 동쪽 길이 허물어져, 사람들의 고생이 대단히 심했다. 물건을 수레에 실어 나르려고 해도 길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운송하려면 등에 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에 唐 玄宗 開元4年(716) 張九齡이 “돌 비탈길 가장자리를 따라, 초목을 헤치고, 그 산골짜기 지세의 마땅함을 자세히 살펴, 비탈길의 험난함을 바꾸어, 다섯 대의 수레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닦아 수많은 수레들이 사

6) 王勃, 《秋日登洪府滕王閣餞別序》: “豫章故郡, 洪都新府. 星分翼軫, 地接衡廬. 襟三江而帶五湖, 控蠻荆而楚引甌越. 物華天寶, 龍光射牛斗之墟. 人傑地靈, …… 雄州霧列, 俊彩星馳.”

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 대유령이 정비된 이후 광주를 통해 수입된 해외 여러 나라의 재화가 보다 쉽게 수송될 수 있었고, “짐승의 이빨과 가죽, 새의 깃과 짐승 털의 풍부함, 물고기와 소금, 대합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위로는 왕실 府庫의 쓰임을 채울 수 있었고, 아래로는 江淮 지역을 구출할 수 있었다.”⁷⁾ 대유령을 통한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남에 따라 강서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가속화 되었다.

‘安史의 亂’과 晚唐五代의 혼란을 피해 중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오며 따라 내륙과 廣東, 廣西를 잇는 강서는 더욱 번성하였다. 宋代에는 대유령에 南安軍을 설치하여 廣州로부터 올라오는 물산과 상인을 보호하고 감독하였고, 역도를 보수하고 확장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南宋에 들어 수도가 臨安으로 옮겨오자 정치 중심과의 거리 또한 가까워져 강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唐宋이후 嶺南과 내륙을 잇는 중요한 교통요지로 성장한 강서는 문화교류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유령을 넘어 과거길, 벼슬길, 귀양길에 올랐던 수많은 사대부들은 강서와 관련한 수많은 시와 문장을 남겼다. 蘇軾이 海南島에서 3년간의 귀양생활을 마치고 다시 대유령을 넘어 중원으로 돌아오며 지은 시를 통해 이 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학의 골격 흰 수염에 차분한 마음
손수 심은 소나무가 한 아름이 되었군요.
영감님은 대유령의 꼭대기 살면서
돌아오는 귀양객을 몇 명이나 보셨나요?⁸⁾

7) 張九齡, 《曲江集》卷17 <開鑿大庾嶺路·序>: “初嶺東廢路, 人苦峻極, …… 故以載則曾不容軌, 以運則負之以背. 而海外諸國, 日以通商, 齒革羽毛之殷, 魚鹽蜃蛤之利. 上足以備府庫之用, 下足以贍江淮之求. …… 山谷緣磴道, 披灌叢, 相其山谷之宜, 革其坂險之故. …… 則已坦坦而方五軸, 闐闐而走四道.”

8) 蘇軾, 《東坡詩集注》卷9 <贈嶺上老人>: “鶴骨霜髯心已灰, 青松合抱手親栽. 問翁大庾嶺頭住, 曾見南遷幾箇回.”

萬曆 18年(1590) 탕현조는 황제의 실정과 전임 재상 張居正의 과욕, 현 임 재상 申時行的 전횡을 비판하는 <論補臣科臣疎>를 올려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같은 해 가을 廣東 徐聞縣으로 귀양길에 올랐다. 그 역시 대유령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瘴氣 가득한 영남으로 떠나기 전의 감회를 몇 수의 시⁹⁾로 남겼으며, 이때의 기억은 《牡丹亭》 속에 잘 녹아있다.¹⁰⁾

2. 江西의 文學傳統

당송이후 신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많은 進士와 詩人墨客, 思想家를 배출한 강서의 문화전통은 “古今 隱逸詩人之 시조”¹¹⁾라 불리는 東晉 陶淵明(365~427)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도연명은 “천하를 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뜻이 온 천하에 뻗쳐”¹²⁾ 한 자루의 검을 잡고 혼자 먼 곳까지 주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劉宋에 몸을 숙이는 것을 恥辱으로 여겨 평생을 술과 시에 자신을 기탁한 慷慨한 인물이었다.¹³⁾ 강서의 후예들 중에는

- 9)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11<秋發庚嶺>: “단풍잎에 가을 그림자 드리우니, 가을 매미 석양에 숨는구나. / 오동나무 어둠에 처음 흰싸이니, 꽃 같은 이슬 조용히 내리는 비 같다. / 嶺色은 흘러가는 배를 따르고, 강물 빛은 객의 옷에 가득하다. / 달 아래 배회하는 이 밤, 외로운 까치 남쪽으로 날아가네.(楓葉沾秋影, 涼蟬隱夕暉, 梧雲初晚靄, 花露欲霏微. 嶺色隨行棹, 江光滿客衣. 徘徊今夜月, 孤鷓正南飛.)”
- 10) 拙稿, <湯顯祖의 廣東 徐聞縣 貶謫에 관한 小考>, 《동북아 문화연구》제10집(2006) 참고.
- 11) 鐘嶸, 《詩品》卷2: “古今隱逸詩人之宗”
- 12) 陶淵明, 《陶淵明全集》, 卷4: “猛志逸四海, 騫翮思遠翥”
- 13) 朱熹는 도연명에 대한 전인들의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그의 시 속에 감추어진 의분을 드러내었다. “도연명의 시를 사람들은 모두 평담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스스로 호방하다고 자부하였지만, 그의 호방함을 깨닫기는 쉽지 않았다. 그 본색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詠荊軻>일편이라고 생각한다. 평담하고 저열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陶淵明詩, 人皆說是平淡. 據某看他自豪放, 但豪放得來不覺耳. 其露出本相者是詠荊軻一篇. 平淡底人, 如何說得這樣言語出來)”《朱子語類》卷140. 魯迅 역시 도연명의 시

시대에 항거하는 불굴의 정신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연명의 俠의 성격을 추앙하는 자가 많았다.¹⁴⁾

도연명 이후 中唐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문인을 배출하지 못했던 강서에서 다시 시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晚唐과 五代 시기부터였고,¹⁵⁾ 송대에 들어서는 문화의 중심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강서의 문화전통을 화려하게 꽃피운 인물은 盧陵의 歐陽修(1007~1072)였다. 학문적 소양과 인격적 수련을 중시하는 韓愈의 시작태도를 계승한 구양수는 理致를 숭상하는 宋詩의 특징을 형성시켰다. 뿐만 아니라 송시를 발전시킨 王安石(1021~1086, 臨川)과 黃庭堅(1045~1105, 分寧), 楊萬里(1127~1206, 吉水), 文天祥(1236~1282, 吉水)이 모두 구양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강서 출신이었다. ‘唐宋八大家’ 중에서도 구양수, 왕안석, 曾鞏(1019~1083, 南豐)이 강서사람이었고, 송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인 詞에 있어서도 晏殊(991~1055, 臨川)와 晏幾道(1030~1106, 臨川), 姜夔(1155~1230, 鄱陽) 등이 모두 강서사람이었다. 구양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서지역의 문화전통은 黃庭堅에 이르러 ‘江西詩派’로 꽃을 피웠고, 明初의 ‘臺閣體’로 이어졌다. 주의할 만한 일은 당시 강서 문화의 중심인물을 배출한 곳이 정치 중심인 洪州(南昌)가 아니라 唐憲조의 고향인 撫州府 臨川이었다는 사실이다.

에 대해 “많은 논객들이 탄복하는 ‘悠然見南山’이외에도, ‘精衛銜微木, 將以填滄海. 刑天舞干戚, 猛志故常’와 같은 金剛怒目식의 시가 있었음을 중시하였다. 《魯迅全集》第6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422쪽.

- 14)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4, <蕪水朱康侯行義記>: “유독 괴이한 것은 강서와 초 사이에 학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서에는 유희가 많으나 초에는 협유가 많았다(獨怪江楚之間, 不少學者. 江多儒俠, 而楚多俠儒)”
- 15) 《全唐詩》작가 본적지의 변화

時期	初唐	盛唐	中唐	晚唐五代
全國	150	148	275	293
北方	123	99	179	116
南方	27	49	98	177
江西	0	5	8	42

周文英, 《江西文化》(遼寧: 遼寧教育出版社, 1993. 67쪽 참고.

撫州府는 예부터 유명한 郡이었다. 본조에 이르러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德業에 있어서는 晏殊, 文章에 있어서는 王安石과 曾鞏, 儒學과 行誼에 있어 陸九淵(1139~1192) 형제¹⁶⁾와 같은 번성함이 있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으며 일일이 손을 꼽을 수 없다.¹⁷⁾

이처럼 한 조대에, 한 지역에서 정치계와 문화계, 사상계를 이끌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당송시기 강서지역의 경제성장만으로는 설명되어 질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함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元末 균용할거시기에 朱元璋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강서의 자제들은 그를 도와 군자금을 되고, 함께 전투에 참가하여 명 건국초기 중앙의 많은 부문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文字獄을 통해 강서인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正統, 正德(1436~1520)년간에는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하는 인물이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明代 15세기 100년간에 선발된 장원이 총 34명인데, 그 중 강서성 출신이 13명이었고, 江蘇省과 浙江省 출신은 5명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개국 초기 館閣은 江右보다 성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翰林院 중에는 吉水 출신이 많았고, 조정의 선비 가운데 절반이 강서사람이었다.”¹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¹⁹⁾

- 16) 陸九淵의子是子靜, 號는存齋·象山. 江西省金溪출신. 형인九齡과함께江西의二陸으로일컬어졌으며朱子와사상적으로대립했다.
- 17) 張孝祥, 《于湖居士文集》卷15 <送吳教授序>: “撫州古名郡, 至本朝以尤號人物淵藪. 德業如晏元獻, 文章如王荊公、曾南豐, 儒學行誼如陸象山兄弟之盛. 其餘彬彬輩出, 幾不容屈指.”
- 18) 錢謙益, 《列朝詩集小傳》乙集 <周講學叔>: “國初館閣, 莫盛於江右, 故有翰林多吉水, 朝士半江西之言.”
- 19) 明代江西, 浙江, 福建, 湖廣의進士統計表

	洪武	建文	永樂	宣德	正統	景泰	天順	成化	弘治	正德	嘉靖	隆慶	萬曆	天啓	崇禎	合計
江西	147	26	506	53	121	200	95	291	213	208	509	137	525	58	155	3218
浙江	210	22	329	52	101	82	105	379	268	251	817	105	721	91	294	3827
福建	128	16	254	31	59	38	59	202	129	160	478	70	518	59	216	1803
湖廣	50	7	127	13	26	23	163	116	157	325	60	368	64	49	43	1591
全國	881	100	1882	199	750	1349	800	2450	1794	1984	4939	809	5030	709	1694	25380

明初의 문단에서는 강서 출신인 楊士奇와 같은 인물들이 臺閣體의 발전을 주도하였다.²⁰⁾ 때문에 강서에는 이학과 고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주장과 황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황제의 은총에 화답하며, 문학을 통해 도덕을 강조하는 대각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구양수나 왕안석과 같은 대문인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대에 이루어진 문화적인 발전은 감수성이 뛰어났던 탕현조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역문화와 선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3. 江西의 思想傳統

송대의 강서는 시, 사를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전체 송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朱子の 理學과 “心”을 최고범주로 하는 陸九淵의 心學이 발전한 곳이기도 하였다. 朱熹는 “강서 사람들은 대개가 뛰어나고 문장에 능하였으며”²¹⁾, “강서의 사풍은 기이한 논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²²⁾고 하였는데, 그의 평가처럼 撫州 金溪(臨川縣)사람인 육구연은 “우주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우주”라고 설파하며 주희와 대립되는 “江西之學”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강서의 사풍은 명대에도 이어져 학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농후했고, 白鹿洞書院, 鵝湖書院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講學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강서에는 식자층이 확대되고 이학사상뿐만 아니라 ‘心學’도 크게 발전하였다. 마테오 리치는 “돌로 만들어진 훌륭한 개선문(牌樓)으로 가득

陳文華主編, 《江西通史》(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97. 458쪽.

20) 錢謙益, 《列朝詩集小傳》甲集 <劉國司業崧>: “건국초기의 시파로 江西에는 劉泰和가 있었고, 閩中에는 張古田이 있었다. 태화는 雅正으로 종법을 삼았고, 고전은 雄麗함으로써 그 표지를 삼았다. 강서파는 중기로 내려가 東里에게로 귀속되었으며, 점차 대각체로 빠져들어 그 흐름이 비천하여 떨쳐 일어남이 없었다(國初詩派, 江西則劉泰和, 閩中則張古田. 泰和以雅正標宗, 古田以雄麗樹幟. 江西之派, 中降而歸東里, 步趨台閣, 其流也卑冗而不振)”

21) 朱熹, 《朱子語類》卷116: “江西人大抵秀而能文.”

22) 朱熹, 《朱子語類》卷124: “江西士風, 好爲奇論, 恥與人同.”

차서 이제 더 이상 세울 땅이 없을 정도”인 남창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도시는 영혼불멸과 천국 및 지옥을 믿는 이상숭배의 종파와, 자신의 집이나 국가를 다스리며 잘 살아가는 일에는 열중하지만 내세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문관들의 종파를 통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²³⁾

嶺南에서만 생활했던 마테오 리치는 광주나 마카오에 비해 유교적 질서가 잘 지켜져 효자나 효부가 많고, 수많은 과거합격자와 중앙의 고위관리를 배출한 강서의 지역문화를 통해 유교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회의 단면을 접하게 된 것이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강서의 지역문화는 당시 급속한 도시화와 시장화가 진행되었던 閩·粵지역문화에 비해 보수적이고 사변적인 문화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대 강서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陽明學의 발전이었다. 王陽明 사후 그의 학문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黃宗羲(1610~1695)는 《明儒學案》에서 왕양명의 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곳이 江右派²⁴⁾이며 泰州學派에 이르러 그 본질이 변했다고 기록하였다. 江右란 江西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므로 강우파의 학자는 강서출신임을 말할 것도 없다. 강우파의 학설은 王龍溪를 중심으로 하는 現成派의 기성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무모하기까지 한 사상활동에 반발하면서 主靜, 主敬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心의 철학을 세우려는 경향을 보여²⁵⁾ 양명학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주자학에 가까이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서지역에는 頓悟的 입장에서 공부를 경시하고 전통적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태주학파에 속해있는 학자들도 많았다. 인간의 소박한

23) 平川祐弘저, 노영희역 《마테오 리치》(서울: 동아시아), 2002, 249쪽.

24) 黃宗羲, 《明儒學案》卷16 <江右王門學案>: “姚江之學, 惟江右爲得其傳.”

25)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 민음사), 1992. 68~69쪽.

性情을 중시하고 ‘事功術策’, ‘氣骨任俠’을 숭상한 결과 名教, 格式, 道理를 구속으로서 배격하고 用功을 障道라고 배척한 顏山農²⁶⁾, 何心隱²⁷⁾ 그리고 羅近溪²⁸⁾와 같은 氣骨派²⁹⁾의 사상가들은 湯顯조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湯顯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은 나근계였다.

嘉靖 41년(1562) 나근계에게서 “赤子之心”과 “孝慈”의 도를 공부했던 13살의 湯顯조는 스승과 헤어진 뒤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 성현의 책이 아닌 것을 읽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번번이 氣義之士들과 교류하며, 奮起하여 힘쓰고 지나치게 쏠려, 거의 본성을 잃고 지냈다.”³⁰⁾ 25년(1587)이 지나 南京에서 다시 湯顯조를 만난 나근계는 “그대는 천하의 선비들과 더불어 날마다 흐트러져 비장한 노래를 부르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가! 性命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때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³¹⁾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큰 반성을 하게 된 湯顯조는 “道性を 공허한 것이라 여기고, 食色에 관한 本性을 참된 것이라 여기며, 호걸을 있는 것이라 여기고, 성인을 없는 것이라 여기는”³²⁾ 당시의 학문 분위기에 회의를 품고, 마침내 “생을 이는 것이 性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며, 食色으로부터 性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호걸과 같은 선비는 옳은 것이나, 성현의 호방함을 迂視하는 것은 잘못이다”³³⁾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는 ‘食色’과 ‘豪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食色’과 ‘知生’을 결합하려는 것이었고, ‘聖賢’

26) 江西省 吉安縣 출신으로, 布衣의 신분이면서도 강학으로 일세를 풍미한 游俠之士였다.

27) 何心隱(1517~1579) 역시 江西省 吉安府 사람으로 안산농에게 사사하였고, 李卓吾와 함께 王明左派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자유사상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28) 羅汝芳(1515~1588) 江西省 南城縣 사람. 하심은과 함께 안산농에게서 배웠다.

29) 岡田茂彦, 《王陽明と明末の儒學》(東京: 明德出版社, 1970. 185-188참조.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 민음사), 1992. 90쪽 재인용.

30) 湯顯祖, 앞의 책, 詩文卷37 <秀才說>: “血氣未定, 讀非聖人之書, 所遊四方, 輒交其氣義之士, 蹈厲靡衍, 幾失其性.”

31) 상동: “子與天下士日泮渙悲歌, 意何爲者, 究竟於性命如何, 何時可了.”

32) 상동: “士以道性爲虛, 以食色之性爲實; 以豪傑爲有, 以聖人爲無.”

33) 상동: “知生之爲性是也, 非食色也之生; 豪傑之士是也, 非迂視聖賢之豪.”

과 ‘豪傑’을 결합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百姓日用之道’와 ‘孝慈’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식을 결합하는 것이고, 성현의 도와 호걸로 대표되는 협의 정신을 결합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깨우침은 그의 ‘情’을 핵심으로 하는 ‘貴生’사상으로 모아졌고, 사상가로서의 탕현조를 탄생시켰다.

그대와 같은 설교의 재능이라면 塵尾를 잡고 臯比에 오르더라고 어찌 濂洛關閩之學³⁴⁾에 뒤떨어지겠는가! 그런데 어찌 樂隊 사이에 머물며 배우들의 웃음거리가 되려는가!”하고 탄식하자 탕현조는 “저와 선생님이 종일 함께 학문을 이야기 하여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性을 말씀하시고 저는 情을 이야기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³⁵⁾

명대 강서에서 번성했던 양명학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강학활동은 강서의 지역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으며, 지역 사대부들에게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문학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 명중기 대각체가 지배했던 강서문단에 탕현조와 같은 ‘情’을 중시하는 문학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학술적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강서 지역문화의 주선률을 이루고 있던 이학적 분위기는 강서 문인의 문학작품에 이성화와 윤리화의 색채를 띄게 하여, 당시 주류문화를 형성 했던 오지역과 다른 풍격을 배양하였다.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풍격은 탕현조와 오지역 문인간의 논쟁의 씨앗이 되었다.

III. 江西의 文化傳統과 湯顯祖의 文學思想

한 지역의 전통문화는 결코 외부의 다른 문화와 단절된 것이 아니며,

34) 宋學의 4대 類派 中國 宋나라 때의 周敦頤·程顥와 程頤·張載·朱熹 등이 主張한 性理學. 그 出身 地名을 따서 붙인 이름임

35) 陳繼儒, 《晚香堂小品》, <牡丹亭題詞>: “以君之辯才, 握麈而登臯比, 何渠出濂洛關閩下. 而逗漏於碧簫紅牙隊間, 將無爲青青子衿所笑! 臨川曰, ‘某與吾師終日共講學, 而人不解也. 師講性, 某講情.’”

이웃한 지역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자기만의 특징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 역시 타 지역의 전통 문화와 교류 속에서 그 정체성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은 점차 개인의 문학창작이나 문학주장 속으로 녹아들어가 마침내 지역성을 포함한 문학사상이 완성될 수 있게 한다.

1. 湯顯祖의 江西文化認識

《大明一統志》의 기록에 따르면 臨川의 “풍속은 儒雅하며 일을 좋아하고 기개를 숭상한다. 晏元獻과 王文公이 이곳 사람이다.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독서를 즐기고 문장을 좋아한다”³⁶⁾고 했다. 이를 통해 명대 임천인들은 송대의 정치와 문화를 주도했던 지역 선인들의 영향을 깊이 받아 대부분의 “백성들이 뛰어난 자질을 지녔고 문장에도 능하며, 강직한 정신을 지녔음”³⁷⁾을 알 수 있다. 임천에서 나고 자란 湯顯祖 역시 강서사람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³⁸⁾

하지만 명 중기 이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는 ‘魚米之鄉’ 蘇州를 중심으로 한 오지역으로 옮겨갔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강서와 달리 長江과 錢塘江三角洲의 太湖 유역을 중심으로 한 오지역은 지세가 평탄하고 토양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농업이 발달하고

36) 李賢 等, 《大明一統志》卷54 <撫州府>: “其俗風儒雅喜事而尙氣. 有晏元獻、王文公爲之鄉人. 故其人樂讀書而好文詞.”

37) 상동: “民秀而能文, 強而不屈.”

38) 萬曆18年 강서출신인 山西道御使 萬國欽이 목숨을 걸고 당시 수보였던 申時行이 主和를 주장하고 변경의 장수로부터 뇌물을 수취하여 국왕을 속이고 나라를 기만한 일을 비판하는 소를 올리자 湯顯祖는 그에게 편지(<寄萬二愚>)를 보내 “그대의 소를 읽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첫째 강서인의 기개를 저버리지 않았고, 둘째 친구를 배반하지 않았으며, 셋째 회색회색한 수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讀兄大疏, 甚善. 一不負江西, 二不負友, 三不負髯)”고 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행동을 지역문화전통과 관련지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다. 풍부한 물산과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오지역은 수많은 문인들이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會試에 참가하게 되면서 당현조의 교제범위도 “楚尾吳頭”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관계에 진출하면서부터 오지역 문인들과의 교류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오문화의 특징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현조는 春秋시대 吳越지역 사람들은 “그 기질이 급하고 거취를 가볍게 여겼지만”³⁹⁾ 오늘날 “東吳에는 사대부들이 많고, 禮樂鳴琴을 좋아하여 다스릴만한 곳으로”⁴⁰⁾ 바뀌었다고 평가하였다. 오지역의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오지역의 문화를 접하게 된 당현조는 강서가 가진 문화적 한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 비록 재주가 있어도 역시 그 태어난 곳을 보아야 한다. 궁벽한 곳에서 태어나 山川、人物、居室、遊御、鴻顯、高壯、幽奇、怪俠之事를 본 적이 없고, 神明에 무르익어 빛남이 없고, 가슴속에 가득 찬 것이 없다면 귀와 눈이 인색하니 수족은 반드시 절름발이인 것이다.⁴¹⁾

당현조는 오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강서에는 창작의욕을 자극할 만한 인물이나 문화적 충격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당현조가 일방적으로 오지역의 문화를 동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천하에 한가한 사람이 있으면 한가한 땅이 있고, 바쁜 곳이 있으면 바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다. 境界에 연유하여 情이 일어나고, 정에 따라 경계를 지어낸다. 神聖은 이 속에서 인화되므로 남겨둘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일러 바쁜 사람이라고 하는가. 조정에서 명예를 닦고, 시전에서 이익을 닦는 사람들이 모두 천하의 바쁜 사람들이다. 바쁜 땅이 있으면 이

39) 湯顯祖, 앞의 책 詩文卷31 <吳越史纂序>: “吳越江湖間, 其民氣急, 去就頗輕.”

40)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48 <答曠聲和>: “在東吳多士大夫, 悅禮樂鳴琴而可治.”

41)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2 <王季重小題文字序>: “人雖有才, 亦視其所生. 生于隱屏, 山川人物居室遊御鴻顯高壯幽奇怪俠之事, 未有覩焉. 神明無所練濯, 胸腹無所厭餘. 耳目其吝, 手足必蹇.”

로서 고통스러워 진다. 어떤 이들을 일러 한가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智者는 산을 좋아하고 仁者는 물을 좋아한다. 이러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다. 한가한 땅에 있으므로 그것을 즐겨워한다. 즐거움과 고통이 도에 있어 어떠한지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나 “趣”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다 할 것이다.⁴²⁾

탕현조는 오지역의 문인들을 바쁜 땅에 사는 바쁜 사람들로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 시전에서 이익을 다투는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스스로는 한가한 땅에 사는 한가한 사람이라 山水自然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고, 오지역과 강서의 지역문화는 서로 그 “趣”가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교섭과정을 통해 탕현조는 자기가 속한 지역문화의 전통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黃山谷은 楚나라 사람이고 그대 역시 초나라 사람이니 이에 초나라 사람을 빌어 초나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뜻 지역 사람으로 초나라 사람을 인도한다면 초나라 사람이 오지역 사람은 초나라 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⁴³⁾

達觀和尚은 강서인 黃庭堅을 초나라 사람이라 불렀고, 탕현조도 강서와 초지역 인물들은 ‘유학적인 풍모와 俠의 정신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당시에는 강서와 초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지역 출신인 달관의 말은 탕현조의 의식세계 속에 강한 지역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42)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4 <臨川縣古永安寺復寺田記>: “天下有閑人則有閑地, 有忙地則有忙人. 緣境起情, 因情作境. 神聖以此在囿引化, 不可得而遺也. 何謂忙人, 爭名者于朝, 爭利者于市, 此皆天下之忙人. 卽有忙地焉以苦之. 何謂閑人, 知者樂山, 仁者樂水, 此皆天下之閑人也. 卽有閑地焉而甘之. 甘苦二者, 誠不知于道何如. 然而趣則遠矣.”

43) 達觀, 《紫柏老人集》卷23 <與湯義仍之一>: “山谷楚人, 寸虛亦楚人, 茲以楚人引楚人則似易. 倘吳人引楚人, 則楚人以謂吳人似不知楚人也.”

2. 江西의 文化傳統과 湯顯祖의 詩文意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湯顯祖를 “臨川四夢”의 작가, 혹은 ‘동양의 셰익스피어’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詩文과 賦, 時文으로 일찍부터 문명을 날린 才子로도 알려져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湯顯祖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상과 가문을 빛낼 후손으로 여겨져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부친은 아들의 과거급제를 위해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때문에 湯顯祖는 “어려서부터 眞西山이 편찬한 《文章正宗》을 읽었고, 古文과 시를 잘 지었지만, 그 진정한 도리는 알지 못했다”⁴⁴⁾고 했다. 《文章正宗》은 宋代의 이학자 眞德秀⁴⁵⁾가 편집한 책으로 風教와 관련된 시문을 선록하고, 義理와 實用을 중시한 책이었다. 湯顯祖가 이런 책을 배워야 했던 것은 당시 강서의 지역문풍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湯顯祖는 臺閣體와 “詩必盛唐, 文必秦漢”을 주장하는 ‘前後七子’의 문학주장에 빠져있던 강서의 문풍에서 벗어나, 친구이자 스승이라 할 수 있는 帥機 등과 어울려 前後七子の 流弊를 지적하고, 《文選》을 공부하기시작하면서 六朝의 화려한 문체에 심취하게 되었다.

弱冠에 비로소 《文選》을 읽었는데 문득 六朝의 ‘情’을 聲色에 기탁함을 좋다고 여겼지만 또한 그 법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 그 법을 뒤따름이 오래되자 생각의 길이 트이는 것 같기도 하였으나, 나이는 이미 서른을 넘어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에 수차례 과거에 떨어져 이리저리 기세가 꺾이고 기력이 줄어들었다.⁴⁶⁾

44)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47 <與陸景艱>: “僕少讀西山正宗, 因好爲古文詩, 未知其法.”

45) 眞德秀(1178~1235) 字가 景元, 希元, 또는 景希이며, 號는 西山이다. 학문적으로 朱子의 계통을 이었다. 그는 漢唐의 문장가 중에는 오직 董仲舒와 韓愈 두 사람의 문장만이 義理를 발휘하고 세상의 교화를 도울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한 인물이었으며, 그가 편찬한 《文章正宗》은 《左傳》, 《國語》로부터 唐宋에 이르기까지 문장의 모범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놓은 文集이다.

탕현조가 29세 전후에 발간한 《問棘郵草》를 보게 된 徐渭는 “정말 기재이다, 평생 자주 보지 못할 정도이다. 五言詩는 三謝二陸(謝靈雲, 謝惠連, 謝朓, 陸機, 陸雲)의 작품과도 같다.”⁴⁷⁾라고 찬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 과거의 낙방으로 의기소침하게 된 그는 과거를 위해 형식적인 八股文을 연습해야 했고, 관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학에 대한 애호에도 변화가 생겼다.

탕현조가 남경에서 벼슬생활을 시작했을 때, 당시 문단의 영수였던 “王世貞과 陳文燭도 남경에서 벼슬을 지내고 있었고, 왕세정의 동생인 王世懋는 그의 직속상관이었지만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다. 왕세무가 공을 위해 詩宴을 개최할 것을 제기하여도 고개 들어 대답하지 않았다. 비록 잠시 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 곳에 있지 않았다.”⁴⁸⁾ 탕현조는 모의와 표절을 일삼는 왕세정의 문풍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왕세정의 문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南京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부터 불교와 도교의 책을 약간 읽게 되면서 세속을 초월한 세계에서 노닐게 되었다. 六大家의 문장을 취하여 다시 읽어보니 宋代의 문장이 바로 漢代의 문장임을 알게 되었다. 氣骨은 바뀌었으나 精氣는 가득차고 굳세어. 그 법을 실행하고 그 機에 통달한 것은 한 가지였다. 그래서 더욱 좋아하게 되어 그 법도를 따르다 보니 생각이 더욱 트이는 것 같았다. 다시 나이는 오십이 되었다.⁴⁹⁾

46)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47 <與陸景鄴>: “弱冠, 始讀文選. 輒以六朝情寄聲色爲好, 亦無從受其法也. 規模步趨, 久而思路若有通焉. 年已三十四矣. 前以數不第, 展轉頓挫, 氣力已降.” “乃求爲南署郎, 得稍讀二氏之書, 從方外遊. 因取六大家文更讀之, 宋文則漢文也. 氣骨代降, 而精氣滿勁. 行其法而通其機, 一也. 則益好而規模步趨之, 思路益若通焉. 亦已五十矣.”

47) 徐渭, 《問棘郵草》卷首: “真奇才也, 生平不多見. 五言詩大約三謝二陸作也.”

48)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46 <答費文孫>: “故王元美陳玉叔同仕南都, 身爲敬美太常官屬, 不與往還. 敬美唱爲工宴詩, 未能仰答. 雖坐才短, 亦以意不在是也.”

49)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47 <與陸景鄴>: “乃求爲南署郎, 得稍讀二氏之書, 從方外遊. 因取六大家文更讀之, 宋文則漢文也. 氣骨代降, 而精氣滿勁. 行其法而通其機, 一也. 則益好而規模步趨之, 思路益若通焉. 亦已五十矣.”

당현조는 당시 오문화의 수장이자, 문단의 영수였던 왕세정 일가와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佛道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宋六大家의 문장을 즐겨 읽었다. 그는 왕안석과 증공 등의 문장을 읽고 “그 지향과 뜻이 대부분 육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의론과 풍자의 뜻이 漢唐의 여러 군자와 그리 멀지않음”⁵⁰⁾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宋代의 문장이 바로 漢代의 문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송대의 산문을 학습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西漢의 산문을 배우는 것 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文必秦漢”을 주장하는 ‘前後七子’의 문학주장에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다. 錢謙益은 남경 이후 당현조의 문장 풍격이 증공과 왕안석을 닮아 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장 풍격의 변화는 지역문화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당현조는 어려서 육조에 큰 힘을 기울였으나, 장성한 이후에는 도술을 깊이 탐구하여 인간세상의 참과 거짓, 문장의 유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다. 대개 序、記、誌、傳의 문장은 증공과 왕안석에게서 나온 것이 많았다.⁵¹⁾

당현조의 시가에 대한 인식 역시 “詩必盛唐”을 주장하는 ‘前後七子’의 문학주장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본조의 시인들은 理致를 숭상하여 뜻과 흥취에 병폐가 있다”⁵²⁾라고 평가한 이래 줄곧 부정되어 왔던 宋詩의 가치를 긍정하고, 강서의 시가풍격은 “風流”를 중시하는 오지역과는 달리 송대 시가의 영향을 받아 “理致”를 중시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江西에 詩가 있다. 그러나 吳지역 사람들은 그 理致를 싫어한다. 吳지역에도 詩가 있다. 하지만 강서 사람들은 그 風流를 싫어한다. 나는 이 두

50) 상동: “其指意猶多原本六經, 其議論風旨去漢唐諸君子猶未遠也.”

51) 錢謙益, 《湯養仍先生文集·序》: “養仍少刻畫爲六朝, 長而湛思道術, 熟於人世情僞, 與夫文章之流別. 凡序記誌傳之文, 出於曾王者爲多.”

52) 嚴羽, 《滄浪詩話》, <詩變>: “本朝人尙理而病于意興.”

가지를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각자 그 풍이 그러할 뿐으로 억지로 경중을 나눌 수 없다고 하였다. 입언을 하려는 자는 능히 그 하나의 풍을 가지면 충분히 천하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⁵³⁾

탕현조는 전후칠자의 “詩必盛唐, 文必秦漢”을 표방하는 시문은 모의와 표절을 일삼는 거짓된 사람들이 쓴 거짓된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들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오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권력과 결탁하여 헛된 명성을 얻은 것이라 폄하하였다.

탕현조는 송대의 문장이야말로 진한의 풍격을 계승한 것이고, 시에 있어서도 ‘理致’를 중시하거나 ‘풍류’를 중시하는 것은 지역적인 분위기이므로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강서의 시 전통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탕현조의 시문의식은 분명 그가 품고 있던 강서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대각체에 빠져 있는 강서의 시풍을 진작시키고, 모의와 표절로 가짜 시를 적던 전후칠자의 복고주의 문학주장을 넘어 강서 선인들의 문학전통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3. 江西의 文化傳統과 湯顯祖의 戲曲意識

탕현조가 본격적인 희곡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萬曆26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집 玉茗堂에 머물면서 부터였다.⁵⁴⁾ 탕현조가 傳奇를 창작하게

53)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2 <金竺山房詩序>: “江以西有詩, 而吳人厭其理致. 吳有詩, 江以西厭其風流. 予謂此兩者好而不可厭, 亦各其風然, 不可強而輕重也. 立言者能一其風, 足以有行于天下.”

54) 湯顯祖, 《牡丹亭》第1齣: “사무가 번잡한 官場을 떠나 한가한 곳에 머물게 되면서, 온갖 생각을 다해 보아도 즐거운 일이 없었다. 별건 대낮에 창자가 끊어질 듯 비통한 문장을 지어도, 세상에는 오직 情이야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玉茗堂 앞의 아침은 다시 저녁이 되니, 붉은 등이 사람을 반기니, 강산의 아름다움이 나의 문장을 더욱 빛나게 하네(忙處拋人間處住, 百計思量, 沒箇爲歡處. 白日消磨腸斷句, 世間只有情難訴. 玉茗堂前朝復暮, 紅燭迎人, 俊得江山

된 것 역시 宋元이래 희극의 고향이라는 美稱을 지니고 있었던 강서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元代를 풍미했던 元雜劇의 작가와 演員의 대부분은 북방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서지역에는 劉時中이나 趙善慶같은 유명한 元曲 작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北曲의 用韻을 통일시키기 위해 《中原音韻》을 지은 음운학자이자 희극작곡가였던 周德清도 있었다. 명대에 들어 강서의 희극문화는 번영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聲腔과 劇種, 작가와 작품 방면에 탁월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崑曲을 완성한 魏良輔가 강서 사람이었고, 明太祖의 7번째 아들 朱權 역시 南昌에서 45년을 살면서 현존하는 最古의 北雜劇 曲譜인 《太和正音譜》를 완성하였다.

탕현조의 희극창작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江西 宜黃縣 출신 譚綸⁵⁵⁾이었다. 兵部尙書를 역임했던 담륜은 희극애호가로 軍中에 戲班을 두고 전쟁터에서도 희극을 공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嘉靖年間에 들어 강서의 토악 弋陽腔이 변질되어 자기 색깔을 잃고 徽腔이나 靑陽腔으로 바뀐 것을 안타까워해 절강의 예인을 보내어 강서의 자제를 가르치게 하고, 강서의 지역성을 반영한 宜黃腔을 만들어 내었다.⁵⁶⁾ 평소 담륜을 존경하였던 탕현조가⁵⁷⁾ 崑腔에 따르지 않고 宜黃腔의 곡조에 맞춰 완성한 《牡丹亭》은 “집집마다 전해져 읽히게 되니, 오래지 않아 《西

助)”

55) 담륜은 진사출신이지만 오랫동안 해안지대에 근무하다가 복건의 순무자리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사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문무를 겸비한 명대의 많지 않은 인재 중의 한사람이었다. 黃仁厚, 《萬曆15年》, (북경: 中華書局), 1998. 참고

56)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4 <宜黃縣戲神清源師廟記>: “至嘉靖以弋陽之調絕, 變爲樂平, 爲徽靑陽. 我宜黃譚大司馬綸聞而惡之. 自喜得治兵於浙, 以浙人歸教其鄉子弟, 能爲海鹽聲”

57) 兵部尙書로 승진한 담륜이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평소 병약했던 탕현조는 직접 찾아볼 수 없어 인편을 통해 칠언율시 한 수와 검 한 쌍을 선물을 보내었다. 담륜은 그가 보낸 두 자루의 검 중 하나만을 취하고, 탕현조에게 답신을 보내 “그대는 문과 무의 자질을 겸하였으나, 안타깝게 저는 한나라의 주발과 관영을 쫓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足下兼資文武, 惜僕猶未追蹤絳灌耳)”라고 하여 탕현조를 고무시켰다.

廂記》의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⁵⁸⁾로 유행하게 되었다.

“三吳歌舞의 고장에서 나서 자라고, 承國管絃의 서적에 파묻혀서 음률의 묘를 이해하여”⁵⁹⁾ ‘詞林哲匠’이라 불렸던 심경은 曲意를 강조하여 음률을 무시하는 湯顯祖의 창작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고, 급기야 湯顯祖의 《牡丹亭》을 崑腔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임천과 오강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명대의 곡론가인 王驥德은 그 경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천과 오강과는 처음부터 얼음과 숯불의 관계였다. 오강은 법을 고수함에 세세한 것까지 한 글자도 음률에 어그러지지 않았지만, 필봉은 제각기 졸렬하였다. 臨川은 情趣를 중시하여 곧장 종횡함으로써 문장조직의 공교로움은 거의 적녀성과 다름 정도였지만, 난해하여 노래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깨물도록 하였다. 이에 吳江이 일찍이 말하길, 차라리 음률에 맞게 하지 문사를 공교롭게 하지는 않겠다. 읽을 때 문구가 잘 맞지는 않더라도 노래해서 음률에 맞으면 이를 일러 적중의 교라 한다 하며 임천을 위해 《牡丹亭》의 자구 중 음률에 맞지 않는 곳을 고쳐주었다. 여사부가 이를 가지고 임천에게 이르니, 임천은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이부에게 답변하길 ‘저들이 어찌 곡의를 알겠는가! 내 뜻이 이르는 바라면 천하 사람들의 목을 비트는 일도 꺼려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처럼 달랐다.⁶⁰⁾

하지만 《元曲選》을 편집한 臧懋循는 <玉茗堂傳奇引>에서 湯顯祖의 한계를 임천이라는 지역과 지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었다.

58) 沈德符, 《顧曲雜言》: “家傳戶誦, 幾令西廂減價.”

59) 呂天成, 《曲品·上品之上》: “生長三吳歌舞之鄉, 沈酣勝國管絃之籍. 妙解音律.”

60) 王驥德, 《曲律》<雜論> 第39下: “臨川之吳江, 故自氷炭. 吳江守法, 斤斤三尺, 不欲令一字乖律, 而毫鋒殊拙. 臨川尙趣, 直是橫行, 組織之工, 幾與天孫爭巧, 而屈曲聱牙, 多令歌者齟舌. 吳江嘗謂寧協律而不工, 讀之不成句, 而謳之使協, 是謂中之之巧. 曾爲臨川改易還魂字句之不協者, 呂吏部玉繩以致臨川, 臨川不懌, 復書吏部曰彼惡知曲意哉, 余意所至, 不妨拗折天下人嗓子. 其志趣不同如此.”

지금 臨川이 태어나서 吳門을 밟지 않고, 배움이 아직 음률을 살피지 않았으니 옛날 哲人의 聲名을 흠모하여 공허한 언사를 늘어놓았다. 고향의 건문에 국한되어 節奏를 잃어버린 曲을 지었으니, 어찌 元人の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⁶¹⁾

심경과 관계가 깊었던 오지역 희곡가들은 湯顯조가 곤강의 곡률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강서의 문화전통에 빠져 曲意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하였다. 湯顯조는 그의 불편한 심경을 凌夢初에게 다음과 같이 드러내었다.

저는 평생 吳越을 잘 알지도 못했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과거에 정력을 소모하고 道學에 얽매어 文이나 賦, 律呂에 관해 온 마음을 바쳐 橫絶하기도 유창하기도 못합니다. 다만 어쭙잡은 지체로 이것저것 건들기만 했지 어느 하나에 전력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읊조리고 외고 다루었습니다. …… 비로소 위로는 葛天氏의 음악으로부터 아래로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래란 字句마다 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일 따름입니다.⁶²⁾

湯顯조는 자신의 삶이 오지역 문화와 무관했을 뿐만 아니라, 강서의 전통처럼 과거와 도학에 얽매어 살았기 때문에 음률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문장이란 “意趣神色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 질 때에 아름다운 문사와 빼어난 음률이 있다면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때에 일일이 九宮四聲을 따질 수 있겠는가?”⁶³⁾라고 하여 곡률과 歌唱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오지역 문인들과는 달리 曲意를 중시하는 그의 희극관을 드러내었다.

61) 臧懋循, 《負苞堂集》<玉茗堂傳奇引>: “臨川生不踏吳門, 學未窺音律, 艷往哲之聲名, 逞汗漫之詞藻, 局故鄉之聞見, 按無節之弦歌, 幾何不爲元人所笑乎.”

62)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 47 <答凌初成>: “不佞生非吳越通, 智意短陋, 加以舉業之耗, 道學之牽, 不得一意橫絶流暢于文賦律呂之事. 獨以單慧涉獵, 妄意誦記操作. ……始知上自葛天, 下至胡元, 皆是歌曲. 曲者, 句字轉聲而已.”

63)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 47 <答呂姜山>: “凡文以意趣神色爲主, 四者到時, 或有麗詞俊音可用, 爾時能一一顧九宮四聲否.”

더 나아가 탕현조는 ‘情’이 모든 예술의 동력이며 근원이라는 전통적인 시가이론을 계승하여 “사람은 나면서부터 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감동하여 가슴속에 내재된 감정을 詩詞와 歌舞, 表現 등이 결합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⁶⁴⁾이 희곡이라고 하였다. 탕현조는 사람들이 희곡을 통해 하늘과 땅,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 등에 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금의 千變萬化를 다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⁶⁵⁾ 나아가 잘 만들어진 희곡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강한 감염력뿐만 아니라 교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까닭 없이 기쁘게 하고, 이유 없이 슬프게 한다. …… 군신간의 예절을 조화시킬 수 있고, 부자간의 은혜를 사무치게 할 수 있고, 장유간의 화목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부부간의 기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손님과 친구간의 예의를 촉발시킬 수 있으며, 맺힌 원한을 풀어줄 수 있으며, 슬픔과 심란함을 녹여줄 수 있고, 용속하고 비속함을 즐거움 흐리게 할 수 있다. …… 바깥문을 닫지 않아도 되고, 嗜慾을 줄일 수 있다. 사람마다 이 음악을 즐기고, 집집마다 이 도를 지니게 되면 돌림병도 일어나지 않고 천하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인정이란 커다란 구멍으로 名敎의 지극한 즐거움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⁶⁶⁾

탕현조는 ‘意, 趣, 神, 色’을 구비한 희곡작품이 가지는 예술적 매력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희곡이 백성들에게 “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과 같은 유가의 덕목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

64)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34 <宜黃縣戲神清源師廟記>: “人生而有情. 思歡怒愁, 感于幽微, 流乎嘯歌, 形諸動搖.”

65) 상동: “生天生地生鬼生神, 極人物之萬途, 攢古今之千變.”

66) 상동: “使天下之人无故而喜, 无故而悲. ……可以合君臣之節, 可以浹父子之恩, 可以增長幼之睦, 可以動夫婦之歡, 可以發賓友之儀, 可以釋怨毒之結, 可以已愁憤之疾, 可以渾庸鄙之好. ……外戶可以不閉, 嗜欲可以少營. 人有此聲, 家有此道, 疫癘不作, 天下和平. 豈非以人情之大寶, 爲名敎之至樂也哉.”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희곡작품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하여 대문을 열어놓아도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희곡의 오락적인 기능이나 곡률, 가창의 편리함보다 ‘情’과 教化를 결합하고자 했던 탕현조의 희곡관은 ‘희곡의 고향’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닌 강서의 지역문화전통 속에서 배양되어져 나온 것이다.

IV. 나오며

音律을 중시한 吳江派와 意趣를 중시한 臨川派의 논쟁은 중국고전문학 이론비평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당시의 음악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는 오늘날, 그들의 논쟁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연구자는 이 논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음률문제 외에 또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에 주의하였다. 그것은 바로 당시 문화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오지역 문인들과 전대의 찬란한 문화적 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지녔던 탕현조라고 하는 강서 문인의 갈등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서의 문화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탕현조는 당시 문단의 수장이었던 왕세정의 “文必秦漢, 詩必盛唐”이라는 문학주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고, 嚴羽가 “본조의 시인들은 理致를 숭상하여 뜻과 흥취에 병폐가 있었다”고 평가한 이후 줄곧 그 가치가 폄하되었던 송대의 시를 긍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의 문장이 바로 秦漢의 문장과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바로 강서지역 선인들에 대한, 강서 지역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에서 발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탕현조는 강서지역 출신의 양명학 좌파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다. 특히 나근계의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天理(孝와 慈)와 합일할 수 있다는 ‘赤子之心’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情’을 강조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貴生’사상을 완성하였다.

이는 그의 희곡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은 杜麗娘이라는 인물형상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강서 지역문화와 탕현조의 문학사상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明初 강서지역문화의 중심이었던 이학전통과 대각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參考文獻 >

- 湯顯祖, 徐朔方箋校, 《湯顯祖全集》全4冊(제1판;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9.
- 湯顯祖, 徐朔方箋校, 《湯顯祖詩文集》(제1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文淵閣四庫全書》(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5年.
- 毛效同編, 《湯顯祖資料彙編》全2冊(제1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黃文錫 외, 《湯顯祖傳》(제1판; 北京: 中國戲曲出版社), 1986.
- 徐朔方, 《晚明曲家年譜》(제1판;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3.
- 黃芝岡 외, 《湯顯祖編年評傳》(제1판; 北京: 中國戲曲出版社), 1992.
- 中國戲曲研究院編,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全8冊(제1판; 北京: 中國戲曲出版社), 1982.
- 周勳初, 《中國文學批評小史》(제1판; 湖北: 長江文藝出版社), 1981.
- 魯迅, 《魯迅全集》第6卷, (제1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 周文英, 《江西文化》(제1판; 遼寧: 遼寧教育出版社), 1993.
- 陳文華主編, 《江西通史》(제1판;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97.
- 岡田茂彦, 《王陽明と明末の儒學》(제1판; 東京: 明德出版社), 1970.
-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제1판; 서울: 민음사), 1992.
- 平川祐弘저, 노영희역, 《마테오 리치》(제1판; 서울: 동아아시아), 2002.

拙稿, <湯顯祖의 廣東 徐聞縣 貶謫에 관한 小考>, 《동북아 문화연구》제 10집, 2006.

<中文提要>

中國古代地域遼闊、山隔水阻，交通不夠發達，加之會有長期分裂的局面，不同的地理環境影響著生活於其中的人的氣質、性情、語言和審美習慣，造成了文學上的地域風格。湯顯祖已注意到自然環境與創作主體的影響關係，南北的不同自然環境產生了不同的文學風格。他特別注意江西的地域文化傳統與吳地域傳統文化的不同風格和文學主張。雖然，江左和江右都是中國的南方，明朝文化的中心、多出文化名士的地方，但是不同的自然環境、言語和經濟發展的情況產生了不同的文化心態，文人、士大夫的不同文化心態產生了相異的文學風格。從這樣的角度考察湯顯祖具有的江西地域文化意識，是本文的主要目的之一。雖然，這種研究不可能全面，但可以從一個角度補充目前研究的不足。

주제어 : 地域文化, 江西意識, 吳江派, 臨川派, 文學思想